

# 박목월의 『경상도의 가랑잎』의 공간 은유 분석

박 선 영\*

##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4. 초월적 공간 은유 |
| 2. 자연적 공간 은유 | 5. 결론        |
| 3. 사물적 공간 은유 |              |

## 국문초록

본고는 흐루쇼브스키의 지시틀 이론을 활용하여 박목월의 후기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에 구축된 공간 은유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그의 시에 자연적 공간 은유가 형성됨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 내면의 층위가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는데 시적 주체로 등장하는 ‘고향 사람들’은 강인한 의지적 생명력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3장에서는 그의 시에 사물적 공간 은유가 형성됨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 내면의 층위가 사물적 공간의 층위로 전이되고 있으며 ‘고향’ 공간이 공간성을 지닌 사물의 층

\* 숭실대학교 강사

위로 변주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포용력을 지닌 모성적 생명력으로써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의 시에 초월적 공간 은유가 형성됨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언어적 층위는 초월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고 있으며 ‘사투리’와 병치되어 은유를 형성하는 ‘경상도’는 이상세계로 변용되어 신성한 초월적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다. 본고는 박목월 시의 다의적인 공간의식을 밝힘으로써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조명한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동일성에 토대를 둔 이러한 시의식은 비동일성의 근대에 대응하는 미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흐루쇼브스키, 지시틀, 자연적 공간 은유, 사물적 공간 은유, 초월적 공간 은유, 동일성, 미적 전략

## 1. 문제제기

시인에게 있어 공간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공간은 인간의 삶의 토대로서 실존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간적임”<sup>1)</sup>을 시사한다. 박목월 시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특히 ‘고향’은 후기시로 오면서 그가 천착하는 시적 공간이다. 고향은 인간의 근원적 세계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든 박목월은 고향땅을 방문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러한 지향성이 은유적 의미작용에 의해 동일성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박목월 시인이 자아와 세계가 균열된 근대적 시간, 즉 비동일성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성에 입각한 은유적 세계관을

1) Heidegger, Martin,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2001, 155-159면.

고수하고 있음을 대변해준다.

그동안 박목월의 시는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의 시적 공간에 관한 연구<sup>2)</sup>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박목월 시의 은유에 관한 논의는 서정시가 지닌 수사학적 차원의 연구<sup>3)</sup>와 흐루쇼브스키의 이론으로 언술의 차원에서 파악한 은유 분석<sup>4)</sup>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부진한 편이다. 몇 편의 소논문에 불과한 은유 연구는 의의와 더불어 한계<sup>5)</sup>를 지님으로써 차후의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 
- 2) 박목월 시의 대표적인 공간 연구로는 박운용, 『목월시의 자연공간연구』(상, 중, 하), 『심상』, 1984, 3-6월호; 김혜니, 『박목월 시 공간의 기호론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엄경희, 『박목월 시의 공간의식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승준, 『박목월 시 연구: 공간적 시의식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광구, 『목월 시의 시간과 공간』, 시와 시학사, 1993; 윤은주, 『박목월 시의 공간과 자아』,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수정, 『박목월 시의 공간의식 연구: 집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등이 있다.
  - 3)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근원의식』, 『한국 현대시의 수사학』, 국학자료원, 2001; 금동철, 『박목월 시의 ‘어머니’ 이미지와 근원의식』, 『박목월』, 박현수 편, 새미, 2002; 금동철, 『박목월 후기시의 기독교적 이미지 연구』, 『ACTS 신학과 선교』 제7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3; 유성호, 『지상적 사랑과 궁극적 근원을 향한 의지』, 『박목월』, 박현수 편, 새미, 2002; 최승호, 『박목월론: 근원예의 향수와 반근대의식』, 『서정시의 이데올로기와 수사학』, 국학자료원, 2002; 최승호, 『박목월 시의 나그네 의식』,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9.
  - 4) 김현자, 『한국 자연시에 나타난 은유 연구 -박목월·박용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20호, 한국시학회, 2007.12; 박선영, 『박목월 후기시의 은유 분석 -‘어머니’ 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0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6; 박선영, 『박목월의 후기시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은유체계』, 『한국문학논총』 제52집, 한국문학회, 2009.8; 『『경상도의 가랑잎』의 사물화 양상』, 『우리말글』 제48집, 우리말글학회, 2010.4.
  - 5) 서정시가 지닌 수사학적 차원의 논의는 박목월의 시세계가 근본적으로 은유의 시학에 바탕을 둔 근원지향의 세계임을 밝혔다. 이들의 논의는 기존 연구가 지닌 내용 중심성, 즉 기독교적 내용에 대한 일차원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성을 상당히 극복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논의한 은유는 다양한 수사학의 한 종류로서의 은유가 아니라 근원적인 세계관과 관련된 수사학이다. 이들의 논의는 서정적 근원으로서의 동일성을 면밀하게 밝힘으로써 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은유 미학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은유의 범주를 단어의 차원에

있다. 더구나 박목월의 시적 공간에 나타난 은유 양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 박목월의 시는 은유의 원리에 의해 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그의 시세계를 규명하는 데 본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박목월 시의 공간 은유를 분석하는 것은 그의 시적 공간에 직조된 은유적 상상력의 층위를 총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목월의 시적 공간에 중점을 두어 은유 양상을 논의하되 특히 '고향' 공간이 중심이 되는 후기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을 대상으로 공간 은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박목월의 시세계<sup>6)</sup>는 시기별로 뚜렷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적 공간의 변모 양상을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초기에 자연적 공간에 집중해 있던 박목월은 중기로 오면서 일상적 현실 공간에 천착하게 된다. 후기로 오면서는 실존적 공간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때 세계와의 갈등과 불화를 드러내던 그의 의식세계는 조화와 화해의 양상을 띠게 된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그의 『경상도의 가랑잎』은 후기시의 범주에 드는 첫 시집이다. 시인의 고향인 '경상도'를 제목으로 내세운 이 시집에는 고향회귀의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그의

---

국한시킴으로써 그의 은유적 상상력을 총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김현자와 박선영은 박목월 시의 형식 미학으로서의 은유를 분석하였다. 김현자는 박목월과 박용래의 시의 자연의식을 흐루쇼브스키의 지시틀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했는데 연구 대상이 박목월의 극히 일부 시편에 한정되어 있으며, 박선영은 박목월 시의 은유를 언술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총체화했는데 연구 범위가 후기시편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 -박선영(2010.4), 위의 논문, 204-206면. 박선영의 『『경상도의 가랑잎』의 사물화 양상』에서는 박목월의 시에 나타난 사물화 양상에 관해 밝혔으나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 6) 박목월의 시는 자연의 세계에 천착한 『청록집』(1946), 『산도화』(1955)를 초기시, 현실세계에 집중한 『난·기타』(1959), 『청담』(1964)을 중기시, 존재론적 세계와 기독교적 세계에 집중한 『경상도의 가랑잎』(1968), 『어머니』(1968), 『무순』(1976)과 유고시집인 『크고 부드러운 손』(1979), 『소금이 빛나는 아침에』(1987)를 후기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이희중, 『박목월 시의 변모과정』, 『박목월』, 박현수 편, 2002, 139-140면.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박목월 시인은 그의 존재의 근원지인 ‘경상도’로 회귀하여 상실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sup>7)</sup> 그의 고향회귀는 단순히 존재의 근원지향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 근대에 대한 시적 대응이라는 이차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박목월의 시에서 공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간의 의미를 조명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구체적인 삶의 양태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상화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인의 시세계가 지닌 미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욱이 시적 공간에 구축된 은유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시인의 공간 인식의 결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목월의 후기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에는 ‘고향’을 배경으로 한 시적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시집에 나타난 ‘고향’ 공간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고향’의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으며 은유적 의미망 속에서 창출되는 다의적인 공간의식을 밝혀내는 작업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박목월 시의 공간적 상상력의 토대 위에 정교하게 직조된 은유체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공간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는 비동일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박목월의 시적 노정 속에서 그의 “동일성에의 욕망, 즉 은유에의 의지”<sup>8)</sup>가 실현되는 양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은유 이론은 대치 은유와 상호작용론으로 나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이’의 개념에 바탕을 둔 대치 은유는 한 단어의 의미를 다른 단어에 의해 나타나게 하는 아주 단순한 이론이다. 이는 은유의 범주를 협소화함으로써 다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의 대

7) 박선영(2010.4), 위의 논문, 206면.

8) 최승호,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6, 486면.

안으로서 제시된 상호작용론은 언술의 차원에서 은유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리차즈, 비어즐리, 블랙, 리피르, 호루쇼브스키 등에 의해 전개된다.<sup>9)</sup> 본고에서는 블랙과 리피르의 이론을 보완하고 심화시킨 호루쇼브스키의 은유론<sup>10)</sup>을 시분석의 방법론으로 활용할 것이다. 호루쇼브스키는 의미의 범주를 ‘지시틀’(frame of reference: frs.)로 세워서 은유의 단위로 삼고 있으며 이들 지시틀 간의 상호작용이 은유라고 설명한다. 그

- 
- 9) 리차즈에 의하면, 은유는 단순히 ‘취의’(tenor)의 의미를 ‘매개물’(vehicle)의 의미로 대신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은유의 범위를 단어의 차원에 국한시키는 한계성을 지닌다. 비어즐리는 리차즈의 ‘취의’-‘매개물’을 ‘주어’-‘수식어’로 바꾸고, 은유를 두 단어 간의 의미적 귀속 관계로 파악한다. 그는 의미의 비틀림이 있는 복잡하고 심층적인 의미관계를 ‘은유적 꼬임’으로 설명한다. 막스 블랙에 의하면, 은유는 한 언술 내에서 은유 작용의 핵심이 되는 단어인 ‘초점’(focus)과 이를 둘러싼 일상적 진술인 ‘틀’(frame)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블랙이 은유의 작용 범위를 단어의 차원에서 문장의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리피르는 이를 언술의 차원으로 확대한다. 리피르는 은유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의미론적 혁신’으로서 이질적 개념들의 상이성 속에서 유사성을 추구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한다.
- 10) 호루쇼브스키의 은유 이론에서 ‘지시틀’은 텍스트에 흩어져있는 불연속적인 요소들에 근거하여 구성된 의미론적 구조물이다. 또한 문장이 고정된 형태인 반면, 지시틀은 유동적인 단위들로서 텍스트 구성에 자유롭게 관여한다. 따라서 그의 지시틀은 하나의 텍스트 안에 있는 비연속적 요소들을 기초로 이를 단일한 의미론적 통사론에 의해 구조화시킨 ‘의미론적으로 통합된 텍스트의 실제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지시틀은 불확정한 미정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하부 패턴들(음성, 단어, 문장, 등)이 지시틀 형성에 기여하며, 지시틀 간의 상호작용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시틀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지시틀로부터 다른 지시틀로 은유적 전이가 진행된다. 이때 전이된 지시틀을 ‘기본적인 지시틀’ 또는 ‘1차적 지시틀’(fr<sub>1</sub>)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다른 하나를 ‘2차적 지시틀’(fr<sub>2</sub>)이라고 한다. 그는 이들 지시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은유가 그 본래적 기능을 드러낸다고 한다. 지시틀 안에는 텍스트 상에 구체화되지 않은 불확정적 틈이 존재하는데 이는 독자의 ‘간격 채우기’(gap-filling)에 의해 채워진다. 텍스트의 맥락에 근거하되 독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지시틀의 설정은 아주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다. -Hrushovski, Benjamin, “Poetic Metaphor and Frames of Reference with Examples from Eiot, Rike, Mayakovsky, Mandelshtam, Pound, Creeley, Amichai, and the New York Times”, Poetics Today, vol.5, No., 1984, pp.11-13.

의 이론은 은유의 작용력이 단어의 차원에서 언술의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잡한 시의 의미 해석은 물론 텍스트의 불확정적인 부분이 독자/비평가의 능동적인 상상력에 의해 채워짐으로써 독창적이고 풍부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sup>11)</sup>

따라서 본고는 흐루쇼브스키의 지시틀 이론<sup>12)</sup>을 활용하여 박목월의 후기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에 구축된 시적 공간의 은유 양상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이로써 그의 인식의 창조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자연적 공간 은유

중기의 시기에 일상적 공간에서 생활인으로 살아온 박목월은 『경상도의 가랑잎』의 시기로 오면서 ‘경상도’라는 고향 공간으로 회귀한다.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년대, 고향을 찾은 시인은 자기 존재에 대해 성찰할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삶에 천착함으로써 존재 일반의 본질을 규명하게 된다. 결핍된 현실 속에서 갈등과 불화를 보이던 중기시와 달리, 이 시기에는 조화와 화해의 인식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거듭 언급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것이 어떠한 은유적 의미망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그의 시 <생토>에 나타난 은유 양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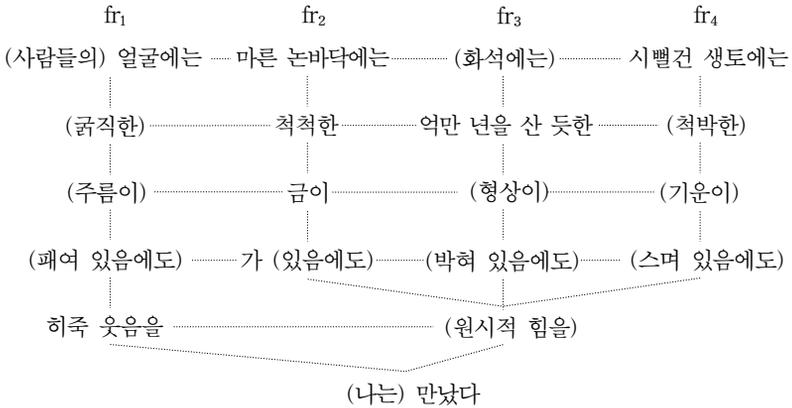
蔚山接境에서도 迎日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마른 논마닥 같은 얼굴들//  
 奉化에서도 春陽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億萬年을 산 듯한 얼굴들//  
 人蔘이 名物인 豊基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척척한 금이 간 얼굴들//  
 다만 聞慶 새재를 넘는 길목에서/ 히죽이 웃는 그 얼굴은/ 시빨건

11) 박선영(2010.4), 위의 논문, 208면.

12) 흐루쇼브스키의 지시틀 이론에서는 은유와 환유를 구분하면서도 ‘metaphor’(메타포)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生土 같았다.

<생토> 전문



위 시에는 고향에서 만난 푸석한 ‘사람들의 얼굴’(fr<sub>1</sub>)이 은유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우선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신체의 일부는 ‘마른 논바닥’(fr<sub>2</sub>)에 비유되면서 공간화된다. ‘마른 논바닥’은 물기가 없이 짝짝 갈라지고 기름짐이 없이 우둘투둘한, 그야말로 메마르고 거친 결을 지닌 땅이다. 3연에서는 이들의 얼굴에 깊이 ‘패여 있’는 굽직한 ‘주름’이 ‘척척한 금’이 ‘가 있’는 상태로 표현됨으로써 현실의 결핍감을 가시화하고 있다. ‘척척’한 상태는 젖어서 차가운 느낌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며 생명을 함축하는 물기와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금’은 양쪽으로 터진 흔적으로서 세계와의 균열을 암시한다. 이렇듯 고향 ‘사람들의 얼굴’은 ‘마른 논바닥’이라는 자연적 공간에 비유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얼굴에 패인 ‘주름’과 이것의 변용인 논바닥의 ‘금’은 내면의 결로서 인생의 질곡을 보여준다. 2연에서는 이들의 얼굴이 ‘억만년을 산 듯’한 얼굴로 표현되는데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적되어 굳어진 ‘화석’(fr<sub>3</sub>)을 연상시킴으로써 은유적 관계의 지시들을 새롭게 파생

시킨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하여 무기력하고 무표정한 고향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진, 즉 화석화된 형상으로 사물화된다. 이러한 ‘얼굴’은 “탈처럼 無氣味한/ 탈처럼 硬化된/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삼화〉)라는 시구에도 나타난다. 삼화 속의 ‘얼굴(fr<sub>1</sub>)은 ‘탈(fr<sub>2</sub>)로 사물화되는데 ‘무표정하’게 경화된 ‘얼굴’은 ‘무기미하’게 굳어진 ‘탈’과 동일시되어 생명력을 잃고 굳어진 상태를 의미화한다.

그런데 위 시 마지막 연에서 ‘다만’이라는 부사어에 의해 의미론적 전환이 일어난다. 이때 의미생성의 수사학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히죽이 웃는 그 얼굴은/ 시뻘건 생토 生土 같았다”라는 직유적 언술에 의해 그 ‘얼굴’은 다시 ‘시뻘건 생토’(fr<sub>4</sub>)로 사물화된다. ‘생토’는 생땅의 흙으로서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는 원래 그대로의 굳은 땅의 흙을 뜻한다. 이 ‘생토’는 갈거나 가꾸지 않은, 그래서 부드럽거나 기름지지 않은 척박한 상태를 드러내지만 날 것이 지닌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 이 힘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생명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물화된 인체를 긍정적인 의미를 확보하는데 이는 그들의 얼굴에 지닌 ‘웃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히죽이 웃’는 행위는 곁핍에 토대 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삭이고 감내하며 살아가는 생명 의지의 발로이다. 이러한 ‘웃음’에는 현실과의 화해의지가 내재해 있다. 사람들의 얼굴에 스민 ‘히죽 웃음’은 ‘마른 논바닥’과 ‘화석’과 ‘시뻘건 생토’에 잠재되어 있는 ‘원시적 힘’과 등가를 이룬다. 이들 지시들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는 만났다’라는 ‘비유적 사건’<sup>13)</sup>에 의해 융합된다. 이 순간은 자아와 세계가 합일하는, 즉 ‘주체와 객체의 간격이 부재하는’<sup>14)</sup> 시점이다. 따라서 ‘굽직한 ‘주름’이 패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척척’한 ‘금’이 가 있는 ‘마른 논바닥’, ‘억만 년을 산 듯’한 ‘형상’이 박혀

13) 비유적 사건(figurative event) 또는 비유적 상황(figurative situation)은 실제(또는 현실)와 상상의 경계가 깨어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Hrushovski, Benjamin(1984), 위의 논문, pp.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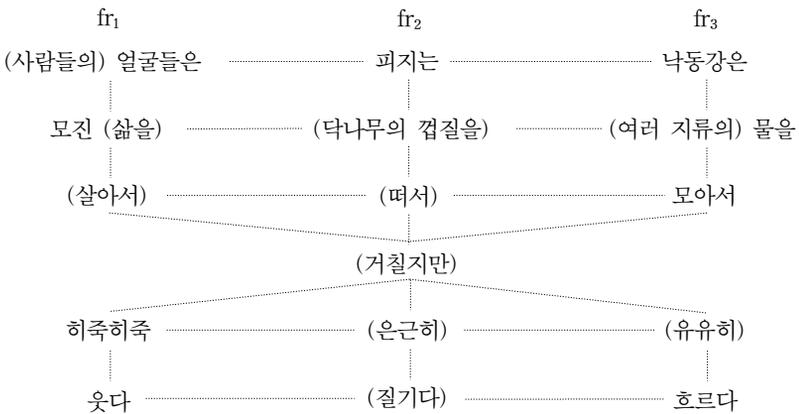
14) Steiger, Emil, 『시학의 근본개념』, 이유영·오현일 공역, 삼중당, 1978, 96면.

있는 ‘화석’, ‘척박’한 ‘기운’이 스며 있는 ‘시뻘건 생토’와 동일한 의미망을 형성한다. 결핍의 요소를 지닌 이들 지시들은 원초적 생명력, 즉 강인한 의지력을 지님으로써 의미론적 통합을 이룬다.

이 시에는 인간의 신체적 층위→자연적 공간의 층위→사물의 층위로의 변전을 통해 지상적 삶의 결핍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려는 강인한 생명 의지가 구체화된다. 이때 부정적인 현실이 시인의 긍정적 인식으로 흡수됨으로써 의미론적 전환을 이룬다. 이질적인 층위로 전이되는 이러한 은유 양상은 시인의 인식의 확장과 갱신을 잘 보여준다. 그의 시 <피지>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위 시에서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물기가 상실된 ‘마른 논바닥’으로 공간화된다면 여기서는 물의 공간인 ‘강’으로 공간화된다는 점에서 대비적이다.

넌들 아나/ 목숨이 뭇지/ 이랑 짧은 돌밭머리/ 모진 쉰나무/ 아베요/  
아베요/ 받들어 모시고/ 皮紙같은 얼굴들이/ 히죽히죽 웃는/ 경상 남북  
도 가로질러/ 물을 모아 흐르는 洛東江.

<피지> 전문



이 시에도 시인의 고향 ‘경상도’ 사람들의 외양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

계가 표출되는데 이는 이중적 은유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 우선 상반부의 “목숨이 뭇지/ 이랑 짧은 돌밭머리/ 모진 쉰나무”라는 시구에는 ‘사람의 목숨’(fr<sub>1</sub>)이 ‘돌밭머리’에 심겨진 모진 ‘상나무’(fr<sub>2</sub>)와 등가를 이루면서 은유를 형성하며, 이는 다시 ‘돌밭머리’(fr<sub>3</sub>)라는 자연적 공간의 층위와 인접성에 의한 환유로 결합한다. ‘상나무’는 효용성이 매우 높아 하늘이 준 신목으로 불리는데 생명력이 강한 이 식물은 인간의 모진 ‘목숨’을 상징한다. 또 ‘이랑 짧은 돌밭머리’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농촌 현실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농촌 삶의 토대가 되는 ‘밭’은 ‘돌밭’으로 제시되어 척박함을 드러내며 ‘이랑’이 ‘짧’은 이것은 좁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결핍된 삶을 암시한다. 이렇게 인간의 ‘목숨’은 식물의 층위,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이동함으로써 가난한 현실 속에서의 모진 생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 지시들은 시 하반부의 은유 양상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시의 “피지같은 얼굴들이/ 히죽 히죽 웃는”에서는 직유적 언술에 의해 ‘사람들의 얼굴’(fr<sub>1</sub>)이 ‘피지’(fr<sub>2</sub>)로 사물화되고 있다. ‘피지’ 즉 ‘피딱지’는 닥나무 껍질로 뜯은 품질이 낮은 종이로서, 겉 표면이 다소 거칠고 누렁지만 질긴 섬유질로 인해 아주 강하고 질기며 보통 종이보다 훨씬 더 두껍다. 이런 ‘피지’에 비유된 ‘사람들의 얼굴’은 ‘경상도’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결핍된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웃’는 행위으로써 현실극복의 의지를 내보이기도 한다. <생토>에서와 마찬가지로, ‘히죽 웃음’은 다소 어리숙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질곡의 삶을 넘어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 ‘웃음’은 어려운 현실을 초극하는 힘으로서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여유를 대변해준다. 한편, ‘피지’ 같은 ‘얼굴’들은 다시 ‘낙동강’(fr<sub>3</sub>)과 겹쳐지면서 비유적 관계를 형성한다. ‘낙동강’은 ‘경상 남북도’를 가로지름으로써 지역의 경계 무화는 물론이고 여러 지류의 ‘물’을 모아 흐르는 융화의 상태를 이끈다. 여러 지류의 물이 집결하는 ‘강’은 생명의 젓줄을 표상하며 갈등과 고뇌

에 근거한 지상적 삶과의 화해를 함의한다. 이는 결국 끊이지 않는 삶과 역사의 흐름을 상징하는 ‘강’으로 수렴되면서 공시적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유대감과 사랑으로 통시적 전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래서 ‘모진 삶’을 살아서 거친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히죽히죽’ 웃는 것은 ‘닥나무의 껍질’을 ‘떼’서 거친 ‘피지’가 은근히 ‘질긴’ 상태, ‘여러 지류의 물’을 모아서 거친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상태와 동일한 의미맥락을 형성한다. 이때 시 전반부에 깔린 부정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된다. 특히 인간의 층위가 ‘강’이라는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는 데에는 시인의 영원성에의 욕망이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시는 ‘인간의 목숨’이 ‘돌발머리’로, ‘사람들의 얼굴’이 ‘강’으로 전이되는 이중적 공간 은유를 보여준다. 이때 인간의 층위가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변전함으로써 지상적 삶의 결핍과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생명력이 구상화된다. 이러한 공간화 양상에는 사물의 층위에 의해 생명력이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그의 중기시 <사향가>에도 ‘강’으로 변주되는 자연적 공간 은유가 나타난다. 이 시의 “무거운 머리틀/ 車窓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부다”라는 시구에는 ‘밤차’(fr<sub>1</sub>), ‘하룻밤’(fr<sub>2</sub>), ‘강’(fr<sub>3</sub>)이 병치되어 비유체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하룻밤’이라는 지상적 존재의 시간이 ‘강’이라는 공간으로 변전하는데 이때의 ‘강’은 ‘이승과 저승’의 매개 공간으로 제시됨으로써 시인의 초월적 욕망을 의미화하고 있다.

세차고 영악한/ 호미같은 무내마을 과수택/ 날이 잘 닦겨진/ 호미 같은 과수택/ 누라 뭐라카르/ 입심 좋음 씨부렁대라지/ 시모님을 모시고/ 모질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사는 길/ 처음부터 어긋난 팔자를/ 눈 딱 감고/ 자갈밭에 호미 같은/ 무내마을 과수택.

<무내마을 과수택> 전문

15) 서범석, 『박목월의 농민시와 사별시』, 『한국 현대문학과 시대정신』, 임영천 편, 국학자료원, 2006, 395면.

위 시에는 ‘무내마을 과수택’(fr<sub>1</sub>)이 ‘호미’(fr<sub>2</sub>)라는 농기구로 사물화된 다. ‘과수택’의 ‘마음’이 ‘세차고 영악해’서 모진 ‘세상’을 ‘살아내’는 것은 ‘호미’의 ‘날’이 ‘날카롭게 잘 닦겨져’서 거친 ‘자갈밭’을 ‘때’는 행위와 등가를 이룬다. 이는 그의 내면세계가 외면화된 것으로서 강한 생명의지의 발현이다. 여기서 ‘자갈밭’(fr<sub>3</sub>)이라는 자연적 공간은 ‘호미’와 환유로 결합하면서 의미생성에 관여한다. ‘자갈밭’은 ‘돌밭’(<피지>)과 마찬가지로 결핍에 토대 한 힘겨운 현실을 암시하며 ‘과수택’이라는 존재론적 상태 역시 결핍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과수택의 강인한 생명력을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농촌의 현실은 풍요와 기름짐이 아닌 결핍과 척박함으로 일관하지만 그는 이러한 삶의 조건을 거뜬히 이겨낸다. 지상에서 “모질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사는 길”임을 터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밑바닥에는 과수택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깔려 있다. 이 시의 “처음부터 어긋난 팔자를/ 눈 딱 감고”에도 절망적인 존재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생명의지가 표출된다. 한편, 그의 시 <노래>에도 여인의 강인한 생명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시의 “가난이 죄라지만/ 육십평생을/ 삼십리 밖을 모르고/ 살림에만 쫓들린/ 손님 상에/ 모지러진 손갈/ 고모요”라는 시구에서 ‘모지러진 손갈’(fr<sub>2</sub>)은 가난한 살림 속에 모질어진 고모의 ‘일생’(fr<sub>1</sub>)을 환유한다. 이것은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의 국면을 암시하며 각박한 삶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고모의 생활태도를 떠올릴 수 있다.<sup>16)</sup> 이처럼 박목월 시인은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수궁하면서 감내하는 고향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주목하는데 이것은 지상적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물질이 아닌 정신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박목월의 『경상도의 가랑잎』에 자연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고 있음을 살폈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 내면의 층위가 ‘마른 논바닥’, ‘낙동강’, ‘돌밭머리’, ‘자갈밭’이라는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

16) 이승원, 『환상의 지도에서 존재의 탐색까지』, 『박목월』, 박현수 편, 새미, 2002, 104면.

된다. 시적 주체인 ‘고향 사람들’은 체념과 순응을 넘어선 강인한 의지적 생명력으로써 지상적 존재의 결핍된 삶과 척박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이들의 생명의지는 사물의 층위에 의해 부연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상적 존재의 부정적인 현실이 시인의 긍정적 인식 속으로 녹아 드는데 이는 중기시의 은유 양상<sup>17)</sup>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인식에는 물질만능의 시대 근대에 대한 시인의 비판의식이 내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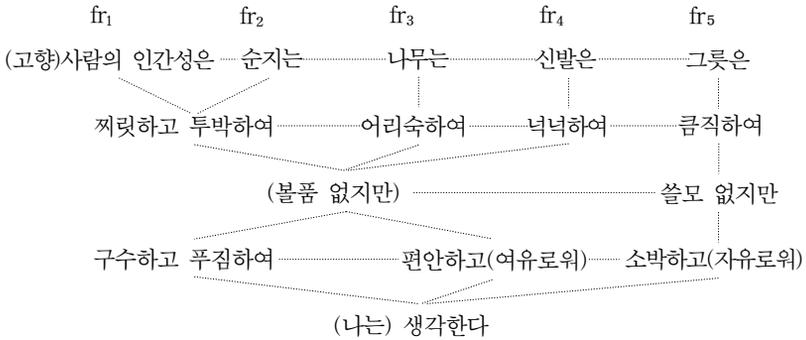
### 3. 사물적 공간 은유

박목월 시인은 근대적 시간이 파생한 자아와 세계의 균열감 속에서 본원적 공간인 ‘고향’으로 회귀하여 은유적 동일성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앞 장에서는 자연적 공간을 중심으로 동일성의 세계가 구축되는데 이 장에서는 이와 대비적인 공간에 의해 동일성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다. 먼저 그의 시 <순지>에 형성된 비유체계를 도표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純紙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 구수하게 푸집한 人間性./ 그런 사람이  
 쉽사리/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어리숙한 나무를 생각한다./ 나무는 다  
 어리숙하지만/ 하다 못해 너넉한 신발을 생각한다./ 발이 죄이지 않는/  
 편안한 신발도 쉽지 않지만/ 큼직한 그릇을 생각한다./ 아무렇게나 주물  
 러/ 소박하게 구어낸/ 그런 그릇은 쓸모 없지만/ 순지를 생각한다./ 純  
 紙로/ 안을 바른/ 은근하게 內明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쉽  
 지 않지만/ 말오춤 냄새 찌릿한/ 투박하고 푸집한/ 韓國의 純紙.

<순지> 전문

17) 박목월의 중기시에는 사물화된 존재가 생명력을 상실한 정태적 속성을 보이면서 부정적 의미망을 형성하는데 이는 그의 유한자적 실존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양상은 현실과의 갈등과 불화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 시에는 함축적 화자의 “-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향성에 의해 다층적인 지시들이 은유적 관계를 이룬다. 1연에서는 직유적 언술에 의해 ‘고향사람의 인간성’(fr<sub>1</sub>)이 ‘純紙’(fr<sub>2</sub>)로 사물화되고 있다. ‘순지’는 ‘찌릿하고 투박하’지만 ‘구수하고 푸근하’여 수수하고 따뜻한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종이다. 이것은 “純紙로/ 안을 바른/ 은근하게 內明한/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구절과 연결되면서 ‘은근하게 內明’한 존재에 대한 희구를 드러낸다. 이는 다시 ‘나무’(fr<sub>3</sub>)라는 식물의 층위, ‘신발’(fr<sub>4</sub>)과 ‘그릇’(fr<sub>5</sub>)이라는 공간성을 지닌 사물의 층위 또는 사물적 공간의 층위와 은유로 결합한다. ‘나무’는 ‘어리숙하’여 불품 없지만 ‘편안하’여 인간에게 넉넉한 쉼을 제공해준다. 또한 인간 존재나 지상적 삶을 표상하는 ‘신발’도 ‘넉넉하’여 ‘불품 없지만’ 죄이지 않아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 역시 ‘큼직하’여 별로 ‘쓸모 없지만’ ‘소박하고 자유로’워서 훈훈함을 조성한다. ‘큼직한 그릇’은 서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꾸밈없이 담아놓은 ‘막사발’을 환기시킨다. 이것은 일체의 형식이나 미로부터 벗어나 ‘아무렇게나 주물러’서 빚어 놓은 그릇으로서 의도성이나 형식성이 없는 순박함과 자유스러움을 보여준다.

위 지시들에서 ‘찌릿하고 투박하여’-‘어리숙하여’-‘넉넉하여’-‘큼직하여’이라는 일련의 술어군은 ‘불품 없’는 상태 내지 ‘쓸모 없’는 상태로서

부정적 의미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는 ‘구수하고 푸짐하여’-‘편안하고 여유로워’-‘소박하고 자유로워’라는 술부군과 연계됨으로써 긍정적 의미향속으로 흡수된다. 이를테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성은 내적인 가치로 인하여 긍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들은 상호작용함으로써 ‘나는 생각한다’라는 비유적 사건에 의해 융합된다. 특히 ‘넉넉한 신발’과 ‘큼직한 그릇’은 공간적 의미를 지님으로써 ‘고향사람의 인간성’이라는 내면세계가 포용력을 지닌 모성적 생명력의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그래서 ‘순지’로 안을 바른 ‘사람’은 겉으로는 ‘볼품 없’고 ‘쓸모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내명한’ 존재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듯 이 시에는 인간의 사물적 공간화를 통해 포용력에 토대 한 모성적 생명력의 결이 구체화된다. 여기서도 사물의 층위에 의해 생명의지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두툼한 문고리의 무게/ 厚朴한 人情味/ 어이 情을 함부로 쓸까부냐/  
 묵직한 문고리를 달고/ 어이 속을 함부로 보일까부냐/ 묵직한 문고리를  
 달고/ 입을 쭉욱 다문 채/ 늘 닫혀 있는 문은/ 과묵하고/ 무표정하고/  
 다만 안으로 환하게 열리는 門./ (중략)/ 두툼한 문고리의 무게/ 한국의  
 人情味.

<문고리> 부분

위 시 1연에서는 ‘문’에 달린 ‘문고리’와 ‘고향사람’의 ‘內面’이 은유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두툼’하고 ‘묵직’한 ‘무게’를 지닌 ‘문고리’는 ‘후박’한 ‘人情味’를 가진 ‘고향사람의 內面’과 동일시된다. 이때 ‘문’(fr<sub>1</sub>)은 ‘고향사람’(fr<sub>2</sub>)과 은유적 대응을 이룬다. 즉 ‘단단하고 견고하게 ‘닫혀 있’는 ‘문’은 ‘과묵하고 무표정하게 ‘굳어 있’는 ‘고향 사람’의 모습과 합치된다. ‘문’은 안/밖, 이쪽/저쪽 등을 구획하는 경계 공간이자 사물적 공간이다. 이런 ‘문’이 늘 ‘닫혀 있’는 상태는 자아와 세계의 불연속성 내지는 단절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에 나타난 ‘단단하고 견고하게’-‘과묵하고 무표정하게’라는 상태가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면 ‘두툼한, 묵직한’-‘후

박한'이라는 상태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때 시적 주체의 외양을 드러내는 전자는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후자로 융화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두 지시들은 '지님으로써'라는 시어를 공유하고 "다만 안으로 환하게 열리다"라는 비유적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융합을 이룬다. 이것은 '안으로'라는 방향이 지시하듯 내계로의 열림을 의미화하며 '환한' 생명의 기운을 자아낸다. 여기서 두툼한 '문고리'는 남성성을 연상시키지만 이것이 '인정미'에 비유되어 '환하'게 '열리'는 '문'은 내밀한 포용력으로서 모성적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이렇듯 이 시에는 인간이 사물적 공간으로 변주됨으로써 시인이 지향하는 내면의 결이 구체화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화해하려는 생명의식에 닿아 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지향은 시 <내년의 뿌리>에도 나타난다. 이 시의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생각한다./ 人間이 人間을 맞아들이는/ 가볍게 열리는 문/ 조용한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이라는 구절에는 따뜻한 '사람의 체온(fr<sub>1</sub>)'이 가벼운 '문'(fr<sub>2</sub>)과 은환유<sup>18)</sup>로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사물적 공간화가 성립한다. '사람의 체온'은 신체 내부의 온도이지만 이는 내적인 온기를 함유한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스스럼없이 '맞아들이'는 행위는 '문'이 '가벼워'서 저절로 '열리'는 행위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따뜻함 내지 푸근함은 일종의 포용력으로서 모성적 생명력에 근거해 있다.

또한 그의 시 <청자>의 "안아서 서러운 한국의 아낙네,/ 그/ 도둑하게 흘러내린/ 어깨 언저리의/ 눈물 같은 線/ 체념의 달밤/ 담기는 대로 채우는 가슴을/ 베갯머리가 허전한 밤에/ 보듬어보는 靑瓷// \*/ (중략)/ 나의 戀歌/ 나의 遺言/ 나의 勝利// \*/ (중략)/ 너는 靑瓷/ 오늘은 첫날 밤의 나의 新婦/ 네 이마의 불빛과/ 가는 핏줄과"라는 시구에도 사물적

18) 움베르토 에코에 따르면, 심층적인 면에서 은유와 환유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어떤 비유는 은유로 봐야할지, 환유로 봐야할지 경계선이 모호하고 애매하며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은환유'라는 용어로 부른다.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189-199면.

공간 은유가 나타난다. ‘청자’(fr<sub>1</sub>)는 공간성을 지닌 사물 또는 사물적 공간이다. 이것은 ‘너’(fr<sub>2-1</sub>)로 의인화되어 사랑과 연민의 대상이 된다. ‘너’는 다시 서러운 ‘한국의 아낙네’(fr<sub>2-2</sub>), 첫날밤의 ‘나의 신부’(fr<sub>2-3</sub>)로 변용되는데 이는 ‘눈물 같은 선’을 지닌 가녀린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 시의 “그/ 도둑하게 흘러내린/ 어깨 언저리의/ 눈물 같은 線”에 서는 ‘청자’가 지닌 ‘선’이 ‘눈물’로 액체화되면서 청자에 서려 있는 물기어린 감정이 가시화된다. 이것은 다시 ‘나의 연가’(fr<sub>3-1</sub>), ‘나의 유언’(fr<sub>3-2</sub>), ‘나의 승리’(fr<sub>3-3</sub>)로 관념화되는데 병치를 이룬 이들은 이질적인 개념이지만 화자의 생을 대변해준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범주로 묶일 수 있다. 이때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들은 ‘청자’가 표상하는 사물적 공간성과 합치된다. 한편, 마지막 연의 “네 이마의 불빛과/ 가는 핏줄”에는 청자가 지닌 유연하고 섬세한 생명력이 감지된다. ‘청자’에 스민 서러움, 체념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시인의 포용력 속으로 녹아들어 화해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 아낙네의 서러운 삶의 승화를 뜻한다. 이 시는 사물적 공간의 층위→ 인간의 층위→ 관념의 층위로의 변전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과 조우하는 생명의식을 산출해낸다. 특히 인간의 사물적 공간화 양상은 포용력에 근거 한 모성적 생명력을 구체화한다.

한편, 그의 시 <동정>에서는 ‘고향’ 공간이 ‘한복’이라는 공간성을 지닌 사물의 층위와 등가를 이루면서 넉넉하고 안온한 모성적 생명력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로써 ‘고향’ 공간은 사물적 공간으로 의미화되기에 이른다.

바짓말이 넉넉한/ 한복을 입으면/ 고향에 돌아온 마음/ 절로 음성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順해진다./ 하지만/ 앞섰을 여미면/ 갑자기 환해  
지는 동정/ 등줄기가 끝나지고/ 위엄이 서린다./ 실로/ 환하고 엄전한  
동정을 달고

<동정> 부분



건에 의해 융합된다. 이때 자아와 외부세계 사이의 간격이 무화되면서 합일을 이룬다. 이로써 ‘나는 ‘음성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순해’지는 정서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고향’은 정신세계를 윤희시키고 순화시키는 생명의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 시에는 지상적 존재의 갈등과 고뇌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복’에 비유된 그의 ‘고향’은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적 생명력을 창출해낸다. 특히 “肉身을 싸안아 肉身을/ 벗게 하”(〈한복〉)는 것은 한복만의 독자적인 특성으로서 이것의 넉넉함, 여유로움, 자유로움은 모성적 공간의 속성과 일맥상통한다. 이외에 그의 시 〈고향에서〉에도 이러한 공간성이 생성되고 있다. 이 시의 “팔목시계를 풀어놓듯/ 며칠 고향에서 지냈다”라는 시구에는 ‘나의 마음’(fr<sub>1</sub>)을 ‘내려놓’는 행위가 ‘팔목시계’(fr<sub>2</sub>)를 ‘풀어놓’는 행위로 전이된다. ‘시간’을 환유하는 ‘팔목시계’를 ‘풀어놓’는 것은 지상적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무거운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편안함, 넉넉함을 표상하는 ‘고향’(fr<sub>3</sub>)과 환유적 관계로 결합함으로써 모성적 생명력을 파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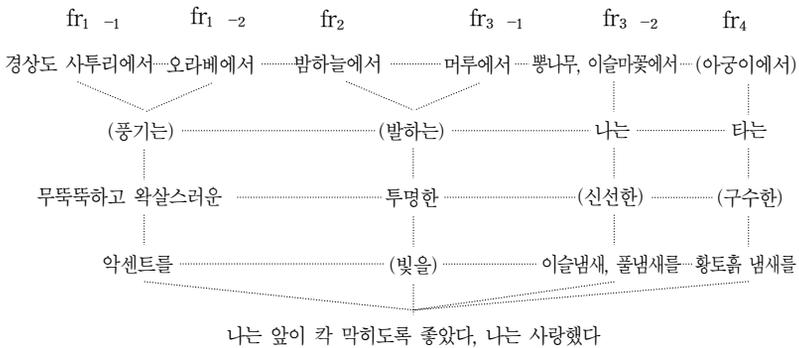
이상에서 그의 『경상도의 가랑잎』에 사물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고 있음을 살폈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 내면의 층위가 ‘신발’, ‘그릇’, ‘문’, ‘침자’라는 사물적 공간의 층위로 전이되며 ‘고향’ 공간이 ‘팔목시계’, ‘한복’이라는 공간성을 지닌 사물의 층위로 변주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포용력에 바탕 한 모성적 생명력으로써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2장과 대비적이다. 여기서도 사물의 층위에 의해 생명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현실은 시인의 긍정적인 인식 속으로 융화된다. 이와 같은 모성적 생명력은 시인이 차가운 속도의 시대인 근대를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4. 초월적 공간 은유

박목월의 『경상도의 가랑잎』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시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언어는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의 내면의식을 가장 잘 반영해준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상도 사투리’는 이들의 존재성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집에서는 ‘경상도’라는 공간이 환유적 관계에 놓인 ‘사투리’와 비유적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의 시 <사투리>의 은유 양상을 도표화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고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오라베 부르면/ 나는/ 앞이 각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머  
 루처럼 透明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디가 셋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혹은 울타리 옆에 피는/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참말로/  
 慶尙道 사투리에는/ 약간의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냄새가 난다./ 그  
 리고 입안에 마르는/ 黃土흙 타는 냄새가 난다.

<사투리> 전문



우선 이 시에는 ‘경상도 사투리’(fr<sub>1</sub>-1)와 이를 환유하는 ‘오라베’(fr<sub>1</su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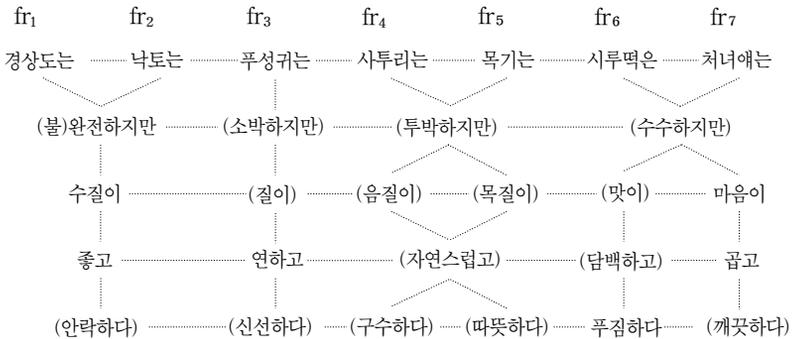
라는 언어의 층위를 기본적 지시틀로 삼을 수 있다. 2연에서 시적 화자가 사랑한 ‘밤하늘’, ‘뽕나무’, ‘이슬마꽃’은 고향을 환기시키는 환유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다. 그런데 이 시의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에 의해 이것은 ‘사투리’와 은유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이 시의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에서는 투명한 고향의 ‘밤하늘’(fr<sub>2</sub>)이 ‘머루’에 비유된다. 이때 ‘머루’(fr<sub>3-1</sub>), ‘뽕나무’, ‘이슬마꽃’(fr<sub>3-2</sub>)은 식물적 층위의 지시틀로 함께 묶일 수 있다. 또한 3연의 “입안에 마르는/ 黄土흙 타는 냄새가 난다”에서는 ‘경상도 사투리’와 은유적 관계에 있는 ‘아궁이’(fr<sub>4</sub>)라는 지시틀이 새롭게 파생된다. ‘경상도 사투리’에서 ‘풍기’는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는 ‘아궁이’에서 ‘타’는 구수한 ‘황토흙 냄새’와 등가를 이룬다. ‘아궁이’는 방에 불을 때기 위해 파낸 구멍으로서 이는 불의 공간이면서 사물적 공간이다. 움푹하게 들어간 이곳은 따뜻한 모성적 공간, 즉 생명의 근원지로서 자궁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해서 ‘경상도 사투리, 오라베’라는 언어의 층위, 고향의 ‘밤하늘’이라는 자연적 공간의 층위, ‘머루, 뽕나무, 이슬마꽃’라는 식물의 층위, ‘아궁이’라는 사물적 공간의 층위가 비유적 고리를 형성한다. 이들 지시틀은 상호작용함으로써 “나는 앞이 각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사랑했다”라는 비유적 사건에 의해 융합을 이룬다. 여기서는 간절한 그리움 속에 자리한 화자의 생명의식이 감지된다. 결국 ‘오빠’의 사투리인 ‘오라베’가 지닌 ‘악센트’는 ‘밤하늘’과 ‘머루’가 지닌 투명한 ‘빛’으로 변주되고 ‘뽕나무, 이슬마꽃’의 신선한 ‘이슬냄새, 풀냄새’로 변주되며, 또 ‘아궁이’의 구수한 ‘황토흙 냄새’로 변주되면서 다의적인 생명의식을 산출해낸다. 즉 ‘경상도 사투리’나 ‘고향’은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투박함을 드러내지만 이면에는 투명한 아름다움, 신선한 생명감, 구수한 정감이 내재해 있다. 이렇듯 이 시에는 ‘사투리’라는 언어의 층위가 자연적 공간의 층위, 식물의 층위, 사물적 공간의 층위로 전이되면서 다의적인 생명력을 구체

화한다.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경상도 사투리’는 고향의 ‘밤하늘’로 변전하면서 순수함에 토대 한 미적 생명력을 산출하며 ‘아궁이’로 변전하면서 온화한 포용력을 지닌 모성적 생명력을 창출한다. 그런데 고향의 ‘밤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을 내포한 초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그의 시 <푸성귀>에서는 ‘경상도’라는 공간의 층위가 언어의 층위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위 시편에서는 고향의 ‘밤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 여기서는 ‘경상도’가 ‘낙토’라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水質 좋은 慶尙道에/ 연한 푸성귀/ 나와/ 나의 형제와/ 마디 고운 수  
 너리班竹./ 사람사는 세상에/ 完全樂土야 있으라마는/ 木器 같은 사투리  
 에/ 푸짐한 시루떡/ 처녀애./ 처녀애./ 통하는 처녀애./ 니 마음의 잔물  
 결과/ 햇살싸라기.

<푸성귀> 전문



이 시에는 고향땅 ‘경상도’(fr<sub>1</sub>)를 중심으로 비유적 고리가 형성된다. 다소 ‘불완전’하지만 ‘수질이’ ‘좋고’ ‘안락’한 ‘경상도’는 ‘낙토’(fr<sub>2</sub>)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고향 ‘경상도’는 지상 공간이면서도 이상세계, 즉 초월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시 전반부에서 보면, ‘푸성귀’(fr<sub>3</sub>)는 ‘경상도’와 환유적 관계에 놓이는데 이것은 ‘소박하’지만 ‘질’이 연하고 신선하다. 이 ‘푸성귀’는 소박한 ‘나와 나의 형제’, 마디 고운 ‘수너리 반죽’과 등가를 이루면서 곱고 연한 눈빛을 지닌 고향의 사람들의 심성을 환기시킨다. 한편, ‘낙토’로 은유화된 ‘경상도’는 다시 구수한 ‘사투리’(fr<sub>4</sub>), 푸짐한 ‘시루떡’(fr<sub>6</sub>), 순수한 ‘처녀애’(fr<sub>7</sub>)라는 의미향과 환유로 결합한다. 이때 ‘사투리’라는 언어의 층위와 ‘시루떡’이라는 사물의 층위와 ‘처녀애’라는 인간의 층위는 병치에 의한 은유적 고리를 이룬다. 경상도 사투리는 거칠고 투박하며 역세고 무뚝뚝한 음질을 갖고 있으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무던하고 따뜻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직유적 연술에 의해 다시 ‘목기’(fr<sub>5</sub>)와 동일화된다. ‘목기’는 나무로 만든 그릇으로서 투박함과 소박함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쇠붙이의 차가움과 달리 따뜻하며 자연스러운 결을 지니고 있다. ‘목기’가 지닌 나무의 결, 즉 ‘목질’은 ‘사투리’라는 방언의 ‘자연스러운’ 음질과 동화되어 긍정적 의미를 산출해낸다. 또한 ‘사투리’와 은유적 대응을 이룬 ‘시루떡’은 시루에 찌서 만든 전통적인 떡으로, 쪼갠 것이 겹쳐 있는 이것은 지극히 ‘수수하’지만 ‘푸짐’함 내지 ‘넉넉’함을 자아낸다. 꾸밈없는 ‘처녀애’의 모습 역시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마음이 곱고 깨끗한, 순결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하반부로 오면 ‘처녀애’의 ‘마음’은 ‘잔물결’과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짜라기’에 비유된다. 잔잔한 물의 움직임인 ‘잔물결’과 잘게 부서져 내리는 빛의 움직임인 ‘햇살짜라기’는 ‘흩어지’는 확산적 행위로써 섬세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조성한다. 이들은 ‘처녀애’의 순결미를 부각시켜준다.

이 시에는 여러 겹의 은유와 환유의 고리가 얽히고설키면서 ‘고향’의 공간성이 다의화되고 있다. 이 시의 ‘불완전하지만’-‘소박하지만’-‘투박하지만’-‘수수하지만’라는 술부근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향을 형성하는 데 비해 ‘안락하다’-‘신선하다’-‘구수하다’-‘따뜻하다’-‘푸짐하다’-‘깨끗하다’

라는 술부군은 긍정적인 의미향을 형성한다. 전자는 후자 속으로 흡수됨으로써 긍정적 의미를 확보한다. 이렇게 ‘고향’은 결핍감을 넘어 안락함, 신선함, 구수함, 따듯함, 푸짐함, 깨끗함 등에 근거한 미적 생명력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곳은 후덕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인정을 나누는 삶의 공간으로서 도회지 삶의 각박함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듯 ‘경상도’는 결핍이 있음에도 화자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주되며, 나아가 인간의 본향으로서 이상세계, 즉 신성한 초월적 공간으로 변주된다. 즉 그의 고향은 현실의 굴레에 매여 있는 시인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상적 공간을 표상한다. 가난과 고통이라는 결핍요소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현실공간이면서도 신성의 힘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상공간인 것이다.<sup>19)</sup>

이와 같이 『경상도의 가랑잎』에 나타난 고향땅 ‘경상도’는 원망 공간으로서 이상세계를 표상하며 시인은 이를 매개로 고달픈 지상적 현실과 조우한다. 한편, 자아를 고향의 공간으로 진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체는 방언인데 이것을 끌어들임으로써 화자의 의식이 시적 근원으로서의 고향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된다.<sup>20)</sup> 방언의 사용은 향토적 고향, 즉 근원적 세계로의 회귀와 닿아 있으며 이것은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상실된 실존적 위상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테면 고향땅 ‘경상도’와 이를 환유하는 ‘사투리’에 대한 집착은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박목월 시인의 절박한 몸짓인 것이다.

바보 <이반>은/ 純土種 사투리를 썼다./ 동아밭줄처럼 굵고 질기고  
우둘두둘한 慶尙道 사투리를// 그의 왕국 해법조문도/ 가죽나무가지처럼  
굵직한/ 사투리로 적혔다./ (중략)/ 아하 하늘百姓의 나라……/ 아침  
이면/ 繡실로 선을 두른 환한 해가/ 둥둥 떠왔다./ <이반>王國에/ 바보

19) 손진은, 『박목월 시의 향토성과 세계성』, 『우리말글』 제28집, 우리말글학회, 2003.8, 256면.

20) 손진은(2003.8), 위의 논문, 243면.

<이반>의 訓示소리/ -밥술은 굶을수록/ 福을 받는기라.

<놀담> 부분

위 인용시에는 ‘경상도 사투리’(fr<sub>1</sub>)라는 언어의 층위가 굵고 질기고 우둘우둘한 ‘동아뱃줄’(fr<sub>2</sub>)로 사물화되고, 굵직한 ‘가죽나무가지’(fr<sub>3</sub>)로 식물화되면서 강한 생명력을 구체화한다. 이질적인 이들 지시들은 ‘굵고 질기다’는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은 언어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반’의 존재론적 차원에 결부되어 있다. 즉 ‘경상도 사투리’가 지닌 굵고 질긴 생명력은 ‘이반’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상한다. ‘이반’은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 이반』에서 왕이 된 ‘이반’을 차용한 인물로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존재를 표상한다. 이 시의 ‘이반’은 어리숙함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역설적인 인물로 제시되는데 이는 고향 사람들의 낙관적인 삶의 자세를 대변해준다. 그는 ‘하늘백성의 나라’를 표상하는 ‘이반 왕국’에서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하는 순토종 ‘경상도 사투리’는 투박하고 어눌하지만 굵직하고 순수한 속성을 지님으로써 하늘나라의 언어가 된다. 그런데 ‘이반왕국’(fr<sub>4</sub>)은 ‘경상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투리’와 환유적 관계에 놓인다. 이때 ‘사투리’는 ‘이반왕국’이라는 초월적 공간의 층위와 연결되면서 신성한 초월적 생명력을 확보한다. ‘이반왕국’에는 몇 가지 삶의 조항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손바닥에 티눈이 박힌’ 자를 ‘밥상’에 앉히고 ‘어메와 아메’를 잘 섬기며, ‘글’보다 ‘도끼자루’를 미우는 것부터 배우고 ‘나그네’를 ‘부모’처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다.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글’이 환유하는 ‘지식’을 차선의 자리에 두며 ‘예절’을 중시하는 삶은 ‘하늘백성의 나라’라는 이상세계의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침이면 이곳에 ‘수실로 선을 두’른 환한 ‘해’가 뚝뚝 떠올라 눈부신 미적 생명력을 자아낸다.

이상에서 그의 『경상도의 가랑잎』에 초월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고 있음을 살폈다.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적 층위가 ‘밤하늘’, ‘낙토’, ‘이반왕국’

이라는 이상세계로서 초월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사투리’와 병치되어 은유를 형성하는 ‘경상도’는 모성적 공간을 넘어 인간의 본향으로서 이상세계로 변용됨으로써 신성한 초월적 생명력을 확보한다. 이로써 시인은 고통스런 지상적 현실과 조우하게 되며 그의 시에 구축된 부정적인 의미항은 긍정적인 의미항 속으로 흡수된다. 이 장에서는 다층적인 지시틀이 형성되어 순수성에 바탕 한 미적 생명력이 다의화되며 사물의 층위와 식물의 층위에 의해 부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성이 상실된 근대에 대응하는 시인의 ‘은유에의 의지’를 잘 반영해준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예술의 차원에서 은유를 이해한 흐루쇼브스키의 이론을 활용하여 박목월의 후기시집 『경상도의 가랑잎』에 나타난 공간 은유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에 구축된 시인의 은유적 상상력의 층위를 밝히고 그의 인식의 창조성을 조명하였다.

2장에서는 그의 『경상도의 가랑잎』에 자연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 내면의 층위가 ‘마른 논바닥’, ‘낙동강’, ‘돌밭머리’, ‘자갈밭’이라는 자연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적 주체로 등장하는 ‘고향 사람들’은 체험과 순응을 넘어선 강인한 의지적 생명력으로써 지상적 존재의 결핍된 삶과 적박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이들이 지닌 강한 생명 의지는 사물의 층위에 의해서 부연되기도 한다. 이때 어려운 농촌 현실은 생명 의지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시기에는 지상적 존재의 부정적 인식이 표면화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 인식 속으로 융화된다. 3장에서는 『경상도의 가랑잎』에 사물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신체 내지는 내면의 층위가 ‘신발’, ‘그릇’, ‘문’, ‘청자’라는 사물적 공간의 층위로 전이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고향’ 공간이 ‘팔목시계’, ‘한복’이라는 공간성을 지닌 사물의 층위로 변주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장에서는 강인한 의지적 생명력으로써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포용력에 바탕 한 모성적 생명력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적이다. 이 역시 사물의 층위에 의해 생명의지가 강조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현실은 시인의 긍정적인 인식 속으로 융화되고 자아와 세계의 화해가 일어난다. 이러한 은유 양상은 현실과의 갈등과 불화로 부정적 의미망을 형성하는 중기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장에서는 『경상도의 가랑잎』에 초월적 공간 은유가 형성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적 층위가 ‘밤하늘’, ‘낙토’, ‘이반왕국’이라는 이상세계로서 초월적 공간의 층위로 변주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투리’와 병치되어 은유를 형성하는 ‘경상도’는 모성적 공간을 넘어 인간의 본향으로서 이상세계로 변용됨으로써 신성한 초월적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고달픈 지상적 현실과 조우하게 되고 시에 나타난 부정적인 의미항은 긍정적인 의미항 속으로 흡수된다. 이 장에서는 다층적인 지시들이 형성되어 시적 의미가 다의화되고 있으며 사물의 층위와 식물의 층위에 의해 순수미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박목월의 『경상도의 가랑잎』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적 생명력은 자연적 공간으로 은유화되고 포용력을 지닌 모성적 생명력은 사물적 공간으로 은유화되며 순수성을 함유한 신성한 생명력은 초월적 공간으로 은유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구상→구상 내지는 추상→구상으로 전이되면서 구체성을 확보하며 부정적인 의미항은 긍정적인 의미항으로 흡수된다. 이로써 그의 시적 공간이 은유의 원리에 의해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경상도의 가랑잎』의 공간

에 직조된 은유적 상상력의 층위를 밝힘으로써 상징의 차원에서 공간의 의미를 밝힌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동일성이 상실된 시대에 대응하는 시인의 미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금동철, 「박목월 후기시의 기독교적 이미지 연구」, 『ACTS 신학과 선교』제7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3, 355-379면.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 박선영, 「『경상도의 가랑잎』의 사물화 양상」, 『우리말글』제48집, 우리말글학회, 2010.4, 203-231면.
- 서범석, 「박목월의 농민시와 사별시」, 『한국 현대문학과 시대정신』, 임영천 편, 국학자료원, 2006.
- 손진은, 「박목월 시의 향토성과 세계성」, 『우리말글』제28집, 우리말글학회, 2003.8, 233-258면.
- 이승원, 「환상의 지도에서 존재의 탐색까지」, 『박목월』, 박현수 편, 새미, 2002.
- 이희중, 「박목월 시의 변모과정」, 『박목월』, 박현수 편, 새미, 2002.
- 최승호,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6, 483-512면.
- Beardsley, M. C., “The Metaphorical Twist”,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Johnson, Mark(ed), Univ. of Minnesota Press, 1981, pp.105-122.
- Hawkes, Terence, 『은유』, 심명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Heidegger, Martin,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2001.
- Hrushovski, Benjamin, 「Poetic Metaphor and Frames of Reference with Examples from Eiot, Rike, Mayakovsky, Mandelshtam, Pound, Creeley, Amichai, and the New York Times」, 『Poetics Today』, vol.5, No., 1984, pp.5-43.
- Paul Ricoeur, “The Metaphorical Process as Cognition, Imagination, and Feeling”,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Johnson, Mark(ed), Univ. of Minnesota Press, 1981,  
pp.228-246.

Richards, I. A., 『수사학의 철학』, 박우수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Steiger, Emil, 『시학의 근본개념』, 이유영 · 오현일 공역, 삼중당, 1978.

<Abstract>

An Analysis on Space Metaphor in Park  
Mok-Wol's 『Dead Leaves of Gyeongsang  
Province』

Park, Sun-Young

This study analyzed space metaphor shown in Park Mok-Wol's late period poetry 『Dead Leaves of Gyeongsang Province』 by employing Hrushovski's theory of frame of reference. In chapter 2, it is discussed that natural space metaphors are generated in his poems. The level of human's body or inner side is transferred to natural space, and main characters, 'the people of hometown' overcome suffering times as strong intent lives. In chapter 3, it is studied that material space metaphor are generated in his poems. The level of human's body or inner side is transferred to material space, and the space 'hometown' is used to be materialized. In this chapter, as tolerant maternal living power, the suffering time is overcome. In chapter 4, transcendental space metaphor generated in his poems is discussed. The level of human language is transferred to transcendental space, and 'Gyeongsang Province' generating metaphor with it's 'dialect' is mutated to an ideal word and is given holy transcendental living power. This analysis has differences between previous studies showing symbolic meanings of space by defining space awareness having several meanings in Park Mok-Wol's poems. The poetic awareness based on identity is an esthetic strategy

corresponding with differentiation in modern time.

Key Words : Hrushovski, Frame of reference, natural space metaphors, material space metaphor, transcendental space metaphor, identity, esthetic strategy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